

우리시대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역할과 전망

윤 재 근* · 김 영 주**

대진대학교

〈요 약〉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양극화 현상의 문제가 단지 경제적 불균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빈부의 양극화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의 고정된 계급을 양산하여 분리된 계급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전 근대사회로의 퇴행을 연상케 한다. 이와 관련해 본 논문에서는 증산의 상생이념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에 주목하여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이념적 모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증산의 종교 활동기였던 조선 후기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가 근간을 이루는 불평등의 사회였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비견된다. 증산은 이러한 시대상황을 ‘진멸지경(盡滅之境)’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불균형의 해결방안으로 상생의 이념을 주창하였다.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평등의 가치를 내포한 상생의 이념은 갈등이나 충돌을 해소한 이상적 공동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상호 신뢰와 존중이 선행되는 보편적 가치의 윤리 규범인 것이다.

증산이 제시하는 상생의 정신은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이념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선 신도들의 대내적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수강과 연수 그리고 공부는 인격적 성숙과 종교인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양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한 교육적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한편, 교육기관을 통한 종교교육은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켜며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정신을 함양한다.

종교의 핵심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한 실천에 있다. 우리사회는 단순한 경제적 불균형을 넘어 이미 계층구조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나’와 ‘남’이 상생의

* 제1저자: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 교신저자: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관계 속에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이의 윤리적 실천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양극화 현상, 한국 신종교, 중산, 상생, 대순진리회, 종교교육

I.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양극화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만연된 현상으로 한국 사회만의 고질적 병폐는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간주되는 이유는 양극화 현상이 단정부의 불균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삶의 전 영역에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양극화의 동인은 1960년부터 진행되어 온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적 경제성장의 부작용과 1997년 IMF 이후 발생한 대량 해고와 실업,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에서 찾고 있다. 빈부의 양극화는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계급양극화로 가시화되어 빈곤의 세습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¹⁾

이와는 달리 소득 분포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관련해서 2006년 0.306에서 2008년 0.314로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5년 0.295로 측정되어 2006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통계청은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최근 10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든 살만한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니계수의 기준설정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²⁾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피부로 체감하는 양극화 지수는 단순한 경제적 불균형을 넘어 계층구조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정된 재화에서 강제되는 무한 경쟁, 현실성 없는 복지정책, 사회문제를 개인의 몫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풍토 등은 양극화로 인한 폐해이며 이것은 더욱 가혹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12년 연속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지표가 현재 한국사회의 이면을 대변하는 단적인 일례라고 하겠다. 또한 이를 반증하듯 OECD 국가 중 사회갈등지수가 5위인데 반해, 사회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요인은 많지만 이를 관리할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³⁾ 그 결과 한국사회의 공동체지수는

1) 남인숙,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 격차」, 『현상과 인식』 제35권 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1), 15-18쪽 참조.

2) <우리나라가 살 맛 난다고? 고소득자 빠진 지니계수>, 《조세금융신문》, 2016년 10월 14일자.

3) 정영호·고숙자,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21호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다.⁴⁾ 정(情)으로 대변되는 우리사회가 이제는 소통의 부재와 갈등이 만연한 사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의 파괴가 최근 더욱 심각하게 주목되는 이유는 극단적으로 분리된 두 집단이 양산되면서 계층 간의 배제와 무시가 사회 저변에 확대되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적 기반이 대물림으로 이어지면서 넘나들 수 없는 공고한 벽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부와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전 근대사회로의 퇴행을 연상시키기도 한다.⁵⁾ 이 같은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 논문에서는 종교교육의 입장에서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이념적 모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조 후기 태동한 한국 신종교 사상 가운데 증산(甞山, 姜一淳, 1871-1909)의 상생이념과 이를 근간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종단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실천에 주목하고자 한다. 증산의 본격적 종교활동은 1901년부터 1909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오늘의 양극화 현상을 대략 1세기 이전에 있었던 종교적 이념을 근간으로 가늠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산의 상생이념에 주목한 것은 조선조 후기의 사회적 흐름, 다시 말해 사회적 불안 요인과 서세동점의 외적 요소로 가중된 문화 충격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비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방향성 모색에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산의 시대인식과 종교체계를 양극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대순진리회의 실천적 측면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II. 증산의 시대인식과 양극화

1. 조선후기의 시대상황

조선후기는 양란이후 누적된 모순들이 총체적으로 표출되던 시기였다. 누적된 폐습이 고착화되고 서학을 비롯한 외래사조가 유입 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민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 오히려 백성들의 착취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사회지도층들은 현실과 괴리된 공론만을 일삼으며 당쟁에 몰두하고 있었다. 정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47-50쪽 참조.

4) <한국 공동체지수 OECD국가 중 꼴지>, 《동아닷컴》, 2016년 4월 9일자.

5) 김원식,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 제26집 (서울: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3), 225쪽.

적 분당과 쟁송은 국정을 문란케 하였으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과 모순 등은 민중들의 삶을 궁핍의 극점으로 치닫게 하였다. 농민을 중심으로 상인, 수공업자에서 몰락한 양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의 집합체인 민중은 사회적 모순 속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어떤 식으로든 양극화 현상은 존재하였으며, 조선후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후기에도 계급과 경제, 그리고 교육의 양극화가 존재했던 것이다. 먼저 계급의 양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주지하듯이 조선은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신분제 사회였다. 양반위주의 철저한 신분제사회였음을 ‘사대부의 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상의 구별로 상징되는 신분사회에서 계급은 곧 권력과 양질의 교육수혜를 의미하였으며, 부가적으로 부의 축적 등으로 상징되었다. 매관매직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양반이라는 계급을 통해 권력과 교육과 부 등 신분제사회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대를 이어 세습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증산은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⁶⁾라는 교설을 통해 신분제사회에서 나타나는 계급 양극화 현상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반상의 구별’이 ‘조상의 뼈를 깎는 것’이라는 지적을 통해 신분 차별이 가지는 부당함이 결원(結怨)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분의 차별에서 오는 부당한 원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반의 인습을 버리고 천인을 우대할 것’과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⁷⁾ 천인에 대한 무시와 적서를 구분하는 등의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교법2-56)라는 교설을 통해 신분질서 속에서 상실되었던 인간 본연의 품성과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한 증산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인 존중의 대상이지 수단으로서의 차별의 대상이 아닌 바, 증산은 신분질서에 기인하는 시대적 오류의 산물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 양극화를 살펴보면, 조선후기는 양란이후 피폐해졌던 농토에 대한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농업기술의 발달은 생산력의 증가로 직결되었다. 특히, 논농사에서의 이앙법 발달은 직파법을 시행할 때보다 1인당 경작량이 5배나 증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달은 소작농들이 농토에서 쫓겨나 광업이나 상업 등에 종사하는 임노동자로 전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비농업 인구의 증대는 주곡(主穀)의 상품화현상으로 이

6)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법 1장 9절; 이하 『전경』의 인용은, ‘편·장·절’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표기한다. 예를 들면, ‘『전경』 교법 1장 9절’의 경우 ‘교법 1-9’의 형식으로 그 전거를 밝힌다.

7) 교법 1-10.

어졌으며, 상품화폐의 발달을 촉진시켰다.⁸⁾ 이는 양반지주들의 토지에 대한 지배 욕구를 자극하였으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토지와 농민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재리에 밝은 평민과 중인들도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렇게 축적된 부는 매관매직을 통한 신분상승과 함께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축출된 민중은 지속적으로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모순에 대한 대응책을 화적질과 민란 등에서 찾음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양반과 상민이라는 계급사회 속의 신분질서는 경제적 분배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의 문제로 연결된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으며, 농업기술의 발달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부의 증대’와 ‘부의 재분배’ 과정 속에서 양반자제와 부를 획득한 평민과 중인의 자제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신분과 부의 대물림을 이어간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하층 천민들은 신분제 사회에서 교육의 측면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래서 증산은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교운1-32)하고 무당 여섯 명을 불러오게 하여 맨 먼저 천한 사람들에게 교를 전하였다. 당시의 신분제사회에서 천대받던 무당을 예우함으로써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민초들을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증산은 부의 편중과 교육의 세습이 지속되는 신분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인간이 원한을 맺게 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제도와 관습이다. 역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신분제와 부의 세습,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 제도와 관습에 기인한 차별과 억압은 원한을 맺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계층 간의 대립으로 이어져 민란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경제적 불균형과 교육의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2. 양극화의 원인과 상극지리

19세기 후반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독점자본을 축적하기 위하여 비서구세계를 그들의 원료와 상품시장 겸 자본수출시장으로 편입시킨 시기였다.⁹⁾ 제국주의의 지배와 침탈을 당한 지역들이 그러하듯이, 19세기 후반의 조선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봉건체제의

8) 한우근·이성무, 『자료로 본 한국문화사: 조선후기편』 (서울: 일지사, 1996), 69-70쪽.

9) 윤기봉, 「증산사상에서의 근대성 해석 문제」, 『종교교육학연구』 제3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152쪽.

해체와 동시에 이루어진 식민자본주의의 팽창은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던 조선의 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였다.

개항으로 촉발된 서구 열강의 조선침략은 농업경제에 대한 의존 속에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경험하던 조선의 폐쇄적 경제상황에 엄청난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서구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상품화폐경제로의 발전가능성이 한층 더 담보되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조선의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도 이전에 세계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공희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한편, 조선사회는 세계자본시장의 부속물로 전락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의 개항은 소수의 지주와 부농층의 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빈농과 영세상인 그리고 노동자층이 사회경제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은 한정된 재화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욕망이란 무언가를 좋아하고 바라면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상태이다.¹⁰⁾

증산은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¹¹⁾라고 하여 인간은 욕망을 지닌 존재이며,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결과까지도 설명한다. 인간이 품게 되는 원은 결국 욕망을 채우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서적 불만족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증산은 인간의 욕망을 금기의 대상으로 단정하거나, 이를 제거한 무욕의 상태를 추가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욕망은 인간의 경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며 현실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인류 생활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에 비례하는 폐해를 낳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풍요로움에 대한 욕망,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망 등 인간이 품었던 삶에 대한 다양한 욕망들이 ‘선(善) 지향적 욕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논의에서 나타나듯 인류역사에 있어 욕망이라는 것이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증산은 인간 욕망의 부정적 측면의 원인을 인간의 마음 작용에서만 찾은 것이 아니라 선천의 상극 현상에서 찾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¹²⁾

인간의 욕망과 이로 인해 파생된 갈등관계가 단순히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극지리’라는 현실 지배의 원리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절대선의 지향적 의지에서 비

10) 권석만, 「욕망의 자각과 조절」,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서울: 운주사, 2008), 248-249쪽.

11) 교법 3-24.

12) 공사 1-3.

롯된 많은 서원(誓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욕망을 추구하게 된 것은 선천의 상극지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이것은 인간에 기인한 문제만이 아니라 천지의 운행원리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¹³⁾ 선천은 ‘상극의 이치’로 말미암은 대립과 갈등이 누적된 세상이며,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서 비롯된 많은 폐단들이 선천 상극지리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욕망의 발생을 천지의 운행원리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증산이 예견한 양극화 현상

상극의 역사는 승자독식의 세계이며 약육강식의 역사였다. 또한 선천의 윤리는 ‘균립하는 자’와 ‘가진 자’ 그리고 ‘있는 자’를 위한 명분이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수직적 인간 관계를 형성하였다. 소위 ‘가진 자’들의 더 높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더 많은 부의 축적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양산하였으며 급기야 ‘참혹한 세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계층간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과 혐오, 무시, 분노의 감정을 양산하며 인류사회의 구조적 갈등을 증폭 시켰다. 반상의 구분, 빈부격차 등에 기인한 지속적인 불신과 반목은 민초들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으며 나아가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인간이 빚어낸 갈등과 투쟁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그래서 고착화된 계급질서 속에서 결핍된 삶을 살았던 민중들이 품었던 원은 사회적 갈등과 민중의 분노로 이어지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증산은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양극화 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¹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양극화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워진 결과 ‘진멸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에서 인간이 지니게 되는 물질적 욕망이 야기한 폐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천하창생이 진멸할 지경’이라는 진단 속에서 우리는 물질문명의 팽배가 가져온 인간 본성의 상실된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¹⁵⁾ 봉건적 지배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지배 세력의 수탈과 압제, 그리고 이러한 모순된 사회구조 속에서 민중들에게 자행된 갖은 수탈은 사회적 계급과 계층적 차별 속에서 이루어진 개인적 권리의 상실, 자유에 대한 억압

13) 김영주,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 『종교문화연구』 제18호 (오산: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12), 155쪽.

14) 교법 1-1.

15) 김영주, 앞의 글, 154쪽.

그 자체였다. 피지배계층을 대상으로 재리에 대한 탐욕이 불러일으킨 차별과 착취는 민중들로 하여금 자기실현의 의지와 삶의 목적에 대한 의지를 상실케 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겪으면서 누적된, 부조리한 계급에 의해 자행된 모든 억압과 차별은 분노와 갈등의 증폭으로 이어졌으며,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모순들은 갖은 민란과 혁명 그리고 전쟁의 형태로 표출되어 세상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결국 증산이 예견한 진멸지경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Ⅲ.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교리의 재해석

양극화 극복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평등’의 가치일 것이다.¹⁶⁾ 증산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상생을 제시하였으며, 상생 이념을 기조로 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역설하였다. 증산은 양극화 현상에서 갈등이나 충돌 없이 모두가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와 윤리 규범이 있어야만 한다는 도식으로 접근하였다.

조선조 후기 사회는 외재적 위협과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수많은 신종교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증산은 고해에 빠진 기층 민중들에게 천지공사를 통한 개벽과 인존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통해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법리에 맞게 다스려지는 평화로운 지상선경이 건설될 것임을 확신케 하였다.¹⁷⁾ 이는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이념적 토대가 상생을 통해 변화되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는 종래의 원한을 풀고 어떠한 원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이타행으로써 대타적 가치관인 상생을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증산은 참혹한 지경에 이른 현실사회를 ‘천하개병(天下皆病)’으로 진단하였으며, 그 원인을 상극과 그로인해 발생한 원(冤)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것은 현실 문제를 대인(對人)의 차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그 본질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특징이 있다.¹⁸⁾ 요컨대 천지공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문제의 본연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하겠다.

이를 토대로 증산은 현실 문제를 극복한 이상적 사회를 전망하였으며, 이는 소위 양극

16) 윤재근,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 제36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108쪽.

17) 위의 글, 108-109쪽.

18) 윤재근, 「한국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종교교육학연구』 제3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160쪽 참조.

화가 극복된 평화와 공존의 사회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재화가 풍족하여 빈부의 차별이 없어지고, 정치적으로 법리에 맞게 다스려져 불공정한 형벌이 사라지며, 사회적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극대화되고 장생을 얻어 안정된 삶을 향유하게 된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지혜가 밝아지고 인격이 도야되어 모든 나라가 화평하여 반목과 갈등이 사라진다고 보았다.¹⁹⁾

증산은 이러한 사회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인류가 지향하는 영구적 평화는 상생의 실천 속에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일이 마땅히 왕성해지는 것은 천지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기에 천지가 사람을 낳아 쓴다.”²⁰⁾라고 하여 천지인 삼계가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천지인 삼계가 개별적 객체로 유리되어 있지 않음을 천명함으로써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고무시키고 있는 것이다.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었지만,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²¹⁾고 하여 세계사의 향방에 무엇보다 인간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적 방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IV.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언과 실천적 방향

1. 종단 내 재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종교교육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배’양극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폭되어 계층 간의 경계와 간극은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양극화문제에 있어 경제적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 주거, 소비, 출산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다져진 계층 간의 경계선이 더욱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19) 예시 81,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익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20) 교법 3-47,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

21) 교법 3-35.

는 점이다. 최근 들어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이유도 소득분포의 불균형에 따른 신(新)신분사회 내지는 신계급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극화현상은 진행형이며, 건전한 시민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양극화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종교를 통해 양극화현상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 프로그램은 종교적인 인격의 성숙과 수도인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것으로 크게 종단차원의 재교육프로그램인 공부와 수강, 그리고 개별적 종교수행인 기도, 수련, 전경강독, 교화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공부’는 일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여주본부도장의 ‘시학·시범공부’와 중국도장에서 시행되는 ‘기도공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공부는 기도, 수련 등 개인적 종교수행과는 달리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수행으로 수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가치지향적 활동이다.²²⁾ 특히 일진(日辰)에 따른 개개인의 공부 시간이 주어짐으로써 보다 강한 책임이 요구된다.

‘수강’은 여주본부도장과 포천수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강의 목적은 대순진리회의 교직자를 재교육하고 그 자질을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수강은 원칙적으로 대순진리회 교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72명의 인원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²³⁾ 수강은 진리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도장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신앙심 함양과 수도인들 간의 화합과 단결심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적 종교수행을 살펴보면, ‘기도’는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해 실행되는 실천적 노력으로서 정신적 신체적 결핍을 치유하기 위한 자기연수의 과정이다. 소박한 종교심을 기반으로 한 기복적 종교의례라기 보다는 증산의 천지공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앙의 대상과 궁극적으로 합일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진실과 정성의 마음가짐이 요청된다. 일신의 복을 원하는 기복적 종교의례가 아니라 이타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처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과 정성으로 임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수련’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이루어지는 수행법으로 세속적 자아로부터 벗어나 인간 본래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자기 훈련의 과정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종교적 연원인 증산의 교설이 기록된 『전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고 있으며, 대순진리회의 설립자인 우당(牛堂, 朴漢慶)의 말씀을 정리한 『대순지침』을 통해

22) 나권수·윤재근, 「대순진리회 인성교육과 활성화 방안」, 『종교교육학연구』 제49권 (부천: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94쪽.

23)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190쪽.

대순진리회가 지향하는 바와 올바른 수행의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경전』’을 강독하는 것은 대순진리를 내재화하고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격적 성숙을 지향하는 수행법인 것이다.

교화는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종교활동이다.²⁴⁾ 교화는 신앙인들이 대순진리에 대한 체득을 통해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이타행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길잡이가 된다.

이상에서 제시된 개별적 종교수행과 교직자 대상의 재교육프로그램들은 신앙인들의 인격적 성숙과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대순진리회에서 현재 행해지는 ‘공부, 수강, 기도, 수련, 경전강독, 교화’ 등은 종교수행의 실천적 측면이 강조된다. 종교수행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가 빚어낸 인간내면의 결핍을 치유하기 위한 마음공부에 해당된다. 마음공부가 종교수행의 특정한 것을 지칭하기 보다는 종교가 지향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전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대 진리가 내재된 종교수행은 배려와 화해 그리고 은혜 갚음을 바탕으로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상처와 아픔 등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격적 완성을 위한 자기연수 프로그램인 이들 프로그램들이 양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앙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2. 대학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

대순진리회를 창시한 우당은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제반교육사업을 3대 중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이는 중산의 종교적 이상사회를 현실에서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3대 중요사업 중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대진대학교는 1995년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순종학과(大巡宗學科)와 2010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종교문화학과를 중심으로 해원상생에 입각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평화에 기여하고 동양사상의 원류를 회복함과 함께 한국사상의 세계화에 기여할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순종학과는 대순종학 관련 교과목 23과목과 한문(8), 사상(3), 예절(1), 진로상담(4) 등의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교문화학과는 2010년 단일학과로 편제가 전환되기 이전, 종교문화학부(대순종학전공, 종교문화전공) 당시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대순종학전공 교과목이 빠진 자리를 종교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학문영역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할 창조적 지성인으로서의 종교문화 전문가와 새로운 문화적 가치체계를 창조하

24) 김영주,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161쪽.

기 위해 균형 있는 종교 감각을 지닌 교양인 육성을 교육목표²⁵⁾로 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교육으로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 이외에 교양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을 살펴보면, 대순종학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양필수교과로 『대순사상의 이해』와 종교문화학과에서 주관하는 교양선택과목인 『종교문화컨텐츠와 스토리텔링』(1·2학기), 교양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종교행복론』(1·2학기)과 『종교와 예술』(1·2학기)이 있다. 교양교육은 학문계열을 넘어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전공교육과 달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교양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²⁶⁾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킬 책임이 교양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이 바람직한 인간형성에 있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그리고 고액연봉이라는 관계 속에서 교육의 본질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교육의 본질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 현상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대진대학교는 해원상생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인존사상을 교육현장에 적용, 실천하고 있다. 성공과 출세지향주의 교육이 빚어낸 인간성 상실의 문제로부터 인간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인간성 회복을 위해 해원상생의 교육이념이 실천되고 있으며, 인존사상을 교육현장에 적용시킴으로써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종교교과 교양교육은 종교에 대한 균형 있는 지식의 습득과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종교관의 정립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 무관심한 대다수의 학생들을 건전한 종교관을 견지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V. 양극화를 넘어 상생으로

“모든 시대는 자신의 현대사회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 당대는 상상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대였다.”²⁷⁾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회에서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존재하였다. 그렇게 보면 양극화 현상은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대에서 빈부격차·교육격차 등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사회에서 빈부격차는 있어왔지만 현재 진행형인 IT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는 경제

25) 김영주·윤재근,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종교교육학연구』 제48권 (부천: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70쪽.

26) 김태영, 「교양교육과 비판적 사고」,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3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173쪽.

27) 정진홍, 『경험과 기억』 (서울: 당대, 2003), 20쪽.

적 측면에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가진 자’로 대변되는 일부 계층에게 경제적 기회와 교육혜택이 집중되면서 ‘경제적 양극화’에서 비롯된 양극화 현상이 교육, 주택, 문화, 출산 등 여타의 다른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전이되는 도미노 현상이 초래되었다. 경제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를 거쳐 계급 양극화를 양산하는 사회, 소위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우리시대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은 이전 시대에서 발생했던 양극화 현상의 부정적 측면들이 정점을 찍었다는 데 있다. ‘경제 양극화’ 즉, 부가 집중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층 간의 분리에 따른 사회적 간극이 일종의 경계선으로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를 가지지 못한 것이 개인의 무능력 내지 자질 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 그리고 무시 등 서로를 해치고 상처 주는 능력이 경제의 발전과 과학의 진보에 못지않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묻지마식 폭력’ 등의 사회적 갈등 등이 유발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종교의 핵심은 신앙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근거로 한 실천에 있다.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바꾸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진정한 종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본다면 무엇을 믿느냐에 집중되어 있던 오늘날의 종교심을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증오, 불관용, 테러 등의 폭력을 우리는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다. 종교의 본질이 이타행에 있다면, 오늘날 종교가 처해 있는 현실은 우리시대의 폭력과 절망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문명의 흐름을 반영하듯 상생은 종교적 맥락에서 나아가 이 시대의 화두로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화해와 협력, 조화와 공생으로 해석되는 상생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상생은 “남을 잘 되게 하라”는 명제로 대변된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미루지 말며,²⁸⁾ 자신이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세워주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먼저 남을 이루게 해주는 것,²⁹⁾ 이것이 바로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상생이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념적 가치에서 사회적 구현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개인적 형태의 실천과 함께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방법이라는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³⁰⁾ 상생은 서로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상대의 존재에 대한 가치 인정과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질 때,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에는 보은(報恩)의 원리가 내재되

28) 『論語』, 衛靈公篇, “己所不欲 勿施於人”

29) 『論語』, 雍也篇,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30) 교법 1-2,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어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모든 생명체는 보은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나’ 이외의 ‘다른 존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나’를 명명하는 다양한 명칭들이 나 혼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상대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나’란 존재가 ‘지금 여기’에서 명명되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란 존재는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나’와 ‘남’이 상생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보은의 윤리를 통한 실천이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현상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형이상학적 신념이나 의심 없는 믿음에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스스로가 변화해야 하며, 도덕성을 습관화함으로써 윤리적 삶을 지향해야 한다. 종교를 통해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정신적 만족이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주의의 탈피를 통해 타인에 대한 무례와 탐욕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종교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가진 신성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를 통한 자기만족에 머무르지 말고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며 타인을 자신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관심의 영역을 자기 자신에서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 이타행의 상생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권규식. 「한국종교와 사회변동의 특수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권석만. 「욕망의 자각과 조절」.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서울: 운주사. 2008.
- 김영주.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_____.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 『종교문화연구』 제18호 (오산: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2).
- 김영주·윤재근.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종교교육학연구』 제48권 (부천: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 김원식.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 제26집 (서울: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3).
- 김태영. 「교양교육과 비판적 사고」.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3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나권수·윤재근. 「대순진리회 인성교육과 활성화 방안」. 『종교교육학연구』 제49권 (부천: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 남인숙.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 격차」. 『현상과 인식』 제35권 3호 (한국인문 사회과학회. 2011).
- 윤기봉. 「증산사상에서의 근대성 해석 문제」. 『종교교육학연구』 제3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 _____. 「한국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종교교육학연구』 제3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_____.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 제36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정영호·고숙자.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21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정진홍. 『경험과 기억』. 서울: 당대. 2003.
- 한우근·이성무.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조선후기편』. 서울: 일지사. 1996.

원고접수일 :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9일

연구자소개: 윤재근

① 전공: 종교교육, 한국신종교사상 / 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 한국신종교사상

③ 주요논저: 「근대 한국 신종교의 이상세계 관념과 종교민족주의」, 「대순진리회의 인성교육과 활성화 방안」,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한국 신종교 경전의 문학적 요소」, 「대순사상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④ E-mail: jkyoun@daejin.ac.kr

연구자소개: 김영주

① 전공: 한국신종교, 종교교육, 한국철학 / 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② 관심영역: 한국신종교, 종교교육, 한국철학,

③ 주요논저: 「증산 강일순의 신선사상」, 「다산 공부론에 있어 주체성 확보문제」, 「증산 수양론에 있어 욕망 해석의 문제」,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증산 수양론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④ E-mail: eureka0710@daejin.ac.kr

Abstract

The Role of Religious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and Forecast for Resolving Polarization Problems

Youn, JaeKeun · Kim, YeongJoo

Daejin University

In recent times, the polarization of society has become a grave social problem.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polarization does not only affect the economic inequality but also affects public's every day life. In other words, the polarization of poor and rich leads to inequality of opportunities, further leading to social hierarchy which in turn causes conflicts between publics. This reminds retrogression of society to premodern era. This paper aims to study Jeung-San's 'Sang-Saeng(相生)' ideology and religious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in order to derive ideological solution to recent societies' polarization problem.

In the era of late Joseon dynasty, when Jeung-San was active religion of the time, the Joseon society was based on hierarchical foundation, with various form of inequality. This era somewhat depicts the present polarized society of Korea. Jeung-San depicted the social phenomenon as 'Jin Meol Ji Kyung(盡滅之境)', a state of complete destruction. Thus Jeung-San suggested the idea of 'Sang-Saeng'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The 'Sang-Saeng' idea combines understanding, respecting and equality to aim for ideological communal society which is resolved of conflicts and collision between people. Moreover the society prioritizes trust and respect between people as ethical value.

As shown above, the religious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is based on 'Sang-Saeng' ideology of Jeung-San. By lecturing the believers with internal education program which allows maturity of personal sprit, the education is effective in terms of overcoming the polarization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education provided by organization allows development of 'Sang-Saeng' idea for believers by focusing on building healthy values and perspective of world which enables the people to live in harmony.

The core of religion is not believing but actively practising religion with belief. In

present times when the society is not only in the stage of economical inequality and arriving at the age of fixation of hierarchy, the awareness of 'I' and 'You' being in a coexistence relationship and active practice of ethics will become the leading clue to resolve and overcome the polarization problem of our time.

Key words: Polarization problems, New-religion in korea, Jeung-San, 'Sang-Saeng', 'Daesoonjinrihoi', 'Religious education'